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2. 15.(월) 12:00
(지 면) 2025. 12. 16.(화) 조간

지역문제, 지방정부-기업- 자매결연 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시상식 개최
- 지역·기업 협업 분야 13건, 자매결연 분야 10건의 우수사례 선정,
각 분야별 10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 특별교부세 지원

<지역·기업 우수사례 예시>

- (지역특산물 활용) 경북 영양군과 (주)오뚜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영양군 특산물 고추를 활용한 ‘THE HOT 열라면’을 개발해 8월 27일부터 시중에 출시했다. 연간 160억 원 판매를 목표로, 매년 영양군 고춧가루 30톤을 사용할 계획이다. 추가로 (주)오뚜기와 라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옥체험 숙소와 예절아카데미 프로그램 제공 행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이어간다.
- (폐현수막 재활용) 매년 6,000톤 내외 발생하나 대부분(70%) 소각·매립되어 경제적비용 초과와 환경오염을 낳는 폐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강릉시, 청주시, 나주시, 창원시가 팀을 이뤄 SK케미칼 등을 비롯한 기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 폐현수막 32톤을 재활용했으며, 내년에는 131톤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자매결연 우수사례 예시>

- (충남 보령-기획재정부-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한국문화정보원 자매결연) 보령시는 자매결연 체결 기관별 전담직원 지정, 기관 맞춤 홍보집 제작과 1기관 1특화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관 맞춤형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자매결연기관 할인업체를 지정(現100개)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 3마리 토끼 잡기에 힘쓰고 있다.
- (전북 남원-소방청 자매결연) 남원시는 소방청 기관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 캠프’, ‘소방가족힐링캠프’ 등을 운영하였고, 소방공무원이 지역 시설이용 시 할인(現 30%→50%)받을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인사처 협업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남원시 특산물 홍보도 진행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5일(월), 행정안전부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유공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 ‘지역·기업 협업 분야’와 ‘자매결연 분야’ 두 부문으로 나뉘어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현장 발표회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순위를 확정한다.
- 먼저, 지역·기업 협업 분야는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13건의 우수사례 중 발표 대회에 6건이 진출했다.
- 영양군은 특산물 고추를 활용하여 오뚜기와 ‘더핫열라면’을 개발하고 출시한 사례를 발표한다.
- 세종시·강릉시·청주시·나주시·창원시 5개 시는 팀을 꾸려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한다.
- 고창군은 특산물 고구마를 활용하여 롯데웰푸드와 제과 제품을 개발하여 호평받은 사례를 발표한다.
- 충청남도과 예산군, 셀트리온은 한 팀을 꾸려 기업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산단조성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사례를 공유한다.
- 음성군은 18개 기업과-음성군 협업 체계 구축 및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조성한 사례를 알린다.
- 구미시는 반도체스쿨(SK실트론) 및 지역정착 인턴ships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 호평을 받은 사례를 공유한다.
- 자매결연 분야는 자매결연 대상 지방정부 1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 중 3건이 발표회에 진출했다.
- 보령시는 ‘보령시-기재부-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담직원 지정, 홍보집 제작, 1기관 1특화사업 발굴을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남원시는 소방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소방안전캠프, 소방가족힐링 캠프 등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은 사례를 공유한다.

○ 가평군은 행정안전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식품안전 홍보캠페인, 수변 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여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을 도모한 사례를 발표한다.

□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평가점수 합산 결과로 수상 순위가 결정되고, 지역·기업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이 선정된다. 자매결연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이 선정된다.

○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분야별 각각 10억 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다.

* ① 지역·기업 협업: (대상) 2.5억 원, (최우수상) 1.5억 원, (우수상) 0.8억 원, (장려상) 0.3억 원

② 자매결연: (대상) 3억 원, (최우수상) 1.5억 원, (우수상) 0.8억 원, (장려상) 0.4억 원

□ 더불어,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시상식’과 함께 기업 지방투자 촉진 및 기업-지방정부 간 협업 등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대상으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 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발표회는 지방소멸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연대와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 “지역과 기업 간, 지역과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간 협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선도사례 발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박중근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정성엽 (044-205-3432)

